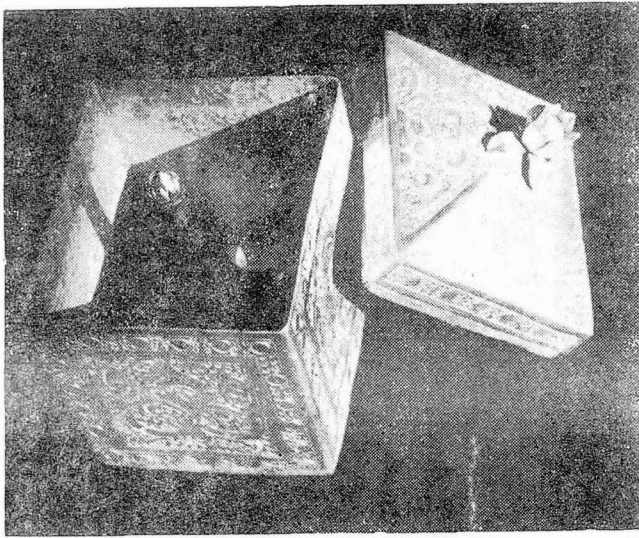


益山 王宮里五層石塔內 發見遺物

黃 壽 永

昨年十一月下旬에 着工된 이 塔의 解體作業 중 十二月 五日 第一層 屋蓋上面中央의 積心部에서 方形石을 利用하여 그 上面左右에 鑿은 二 個方孔에서 有蓋金銅函 各一이 發見되었다. 그런데 이 方形石은 그보다 작은 長方一石으로 덮였고 그 接線을 剛灰로써 密封되어 있었다.



東쪽 金銅外函內 中央에는 金製有蓋方盒이 있었고 다시 그 안에 金製의 蓮花臺座와 蓮봉 오리形栓을 上·下에 갖고 있는 綠色 長頸 圓底瓶이 直立하고 있었다. 西쪽 金銅外函內에도 다시 金製有蓋長方盒이 있었고 그 안에는 金帶 二條로 묶은 純金板經「佛說金剛般若波羅蜜經」十九枚가 들어 있었는데 이 純金板經은 各枚 上·下에 折帖式金具가 마련되어 서로 連結되어 있었다. 이들 두개의 金銅外函內에는 香木片이 들어

있을 뿐 다른 遺品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 金銅外函이 놓여진 方孔의 下底石面에는 각각 塗灰하였고 그 위에 大小 各색의 유리製 小珠를 실로 엮은 받침이 놓여 있었다. 이들의 保存狀態는 모두 놀랄만큼 完全하였는데 그 중 특히 板經은 初有의 遺品으로서 各板 十七行 各行 十七字의 寫經體文字는 도드라지게 片面陽刻되어 있어 注目한 바 되었다.

그 후 解體가 進行되어서 第一塔身部의 計八石이 移置됨을 따라 그 中央에서 積石의 刹柱와 그 周圍의 土壇內에서 正方形 石造基壇이 露出되었는데 이 基壇 四隅에는 不等邊八角高柱形礎石이 各一씩 있어 第一塔身의 四隅石을 받고 있었음이 밝혀졌으며 이 八角隅柱石間에는 長大石을 數段으로 쌓아 올려 있었다. 그리하여 먼저 中央의 刹柱를 解體하던 중 十二月十日 그 最下에 놓인 巨大한 方形心礎石 上面에서 品字로 鑿린 三方孔이 다시 發見되었다. 그리하여 그 東孔에서는 靑銅如來立像(光背 및 臺座具備) 一軀와 靑銅鈴 一個, 北孔에서는 香類로 보이는 黑色遺片 其他 鐵片 一個가 收拾되었으나 西孔의 遺物만은 일찌기 盜失되어 흠뻑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 같은 盜難은 第一塔身의 西쪽 壁板石이 한 때 倒置되어 있던 事實과 또 이번 調査에서 밝혀진 攪亂의 痕跡에서 보아 틀림 없을 것인 바 다만 中央의 刹柱形積石이 健在하였기 때문에 그 上面에 藏置된 舍利具가 完存한 것은 千萬多幸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遺品은 모두 扶餘博物館에 保管되었다가 十二月十二日에 金庠基 文化財委員長과 筆者에 의하여 文化財管理局으로 移管되었으며 同月 十五, 六 兩日間 筆者와 金東賢氏의 손으로 整理 實測되었는데 그 사이 文化財委 第一分委員 등의 來觀이 있었다. 이어서 同月 二十日에는 이 一括遺物에 대한 審議가 文化財委員(本號新—스欄 參照)에서 있었고 이와 아울러 同塔補修設計의 變更에 대하여서도 論議되었다. 이 王宮塔工事는 그 始初부터 學術調査가 실시되었으므로 舍利具 뿐 아니라 石塔構造 및 土壇內外에서의 多數의 古瓦 礎石 등 出土品의 蒐集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이들 關係資料는 앞으로 同塔工事報告書에 收錄될 것이다. (一月六日)

(1) 第一層屋蓋發見의 舍利遺物

㉔ 東舍利孔(八寸一×八寸二×深四寸九)

金銅函(外部朱彩) 長六寸三分×幅五寸五五×高三寸八分
金製盒 高三寸四分 下底一邊二寸四分×二寸
舍利瓶 高二寸(마개除外)

㉕ 西經板孔(九寸一×八寸一×四寸九)

金銅函(外部朱彩) 長八寸三分五、幅六寸二分八、高三寸四分
金製經盒 高一寸九分 長六寸三分五 幅五寸三分
純金經板 各板橫 五寸七分五、縱 四寸九分 字徑二分一一分五

(2) 心礎石東孔發見遺物

青銅佛像 全高五寸六分八 身高三寸〇六
青銅鈴 徑九分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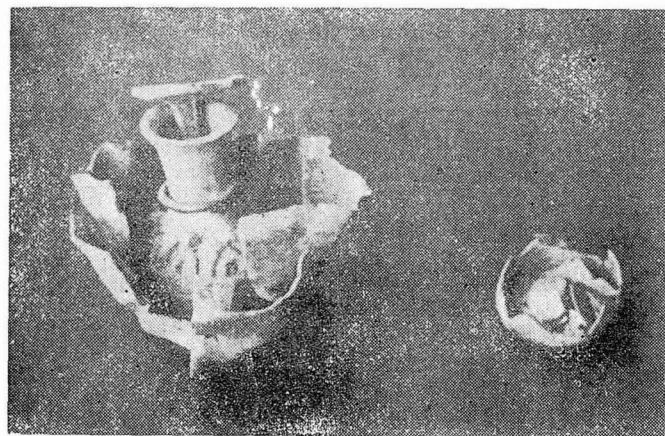
安東 臨河洞 三層石塔內 舍利藏置

秦 弘 燮

梨花女大에서는 安東郡 臨河面 臨河洞에 있는 四基의 石塔中 俗稱「창더(倉더)」라고 불리우는 地點에 있는 三層石塔 一基를 筆者 主管下에 解體調査한 바 이 調査에서 舍利具 一식이 發見되였다. 이 調査는 十一月九日에 시작하여 十六日에 終了하였다. 原來 이 石塔은 下基壇 面石에 十二支像, 上基壇 面石에 八部象像을 彫刻한 二重基壇 위에 三層의 塔身으로 이루어졌으나 崩壞와 缺失이 甚하였다. 下基壇은 埋沒되었으며——解體後에 안 일이지만 十二支像을 彫刻한 二個 石材가 없어졌던 것을 附近民家에서 發見補完하였다——上基壇 面石은 三石만 남기고 五石이 없어졌으며——附近 住民의 말에서 附近 堤防工事に 使用되었었다 하나 正確한 地點은 알 수 없다고 한다——三層屋蓋石 以上은 缺失되었었다. 現高 二m未滿의 小塔이지만 彫飾이 아름답고 各部 比例가 整齊된 美塔이었다.

舍利藏置는 第一塔身 上面에 圓孔을 마련하고 收藏하였는데 特別한 裝置는 없었다. 舍利孔은 第一塔身 中心에 徑一一·五—一二·五cm 深七·五cm의 淺은 圓孔을 鑿고 外皮로 한점 卍壺가 있었는데 모두 鉛製였다. 그 옆에는 銅製 釵가 一個 누어 있는 것이 보였고 舍利孔 위에는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밑에서 半以上 민지와 別레집으로 차 있었다. 이 塵埃 사이에서 유리지 丸玉과 舍利瓶의 破片이 보였고 織物片을 確認할 수 있었다. 이 곳에 納置되었던 舍利具는 다음과 같다.

一、鉛製舍利壺 一個



진 족(길이 三·四cm)이 달린 圓形 平頂의 뚜껑을 가진 瓶形으로서 口緣部가 外反되어 가는 목이 달렸고 肩部에는 七葉의 蓮花紋을 陽刻하였으며 그 위에 四個의 突起가 있어 손잡이를 表示하였고 身部도 九角으로 모를 내고 있으나 各邊은 均一하지 않다. 목에는 銅製 鑲을 매 놓았고 밑은 平底이며 肩部는 一部 남아서 구멍이 나 있다. 그래서 인 지 거의 圓形의